지난번 간단한 태그들을 구성해보았습니다.

H태그부터 table까지 핵심적인 태그를 많이 사용해보았는데요 ? 지금은 지난번 사용해보았던 태그를 이용하여 간단한 자기소개 페이지를 다시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이종호의 자기소개</h1>

<hr>

<img src="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8/Roger\_Michell\_at\_the\_premiere\_of\_Hyde\_Park\_on\_Hudson%2C\_Toronto\_Film\_Festival\_2012.jpg/500px-Roger\_Michell\_at\_the\_premiere\_of\_Hyde\_Park\_on\_Hudson%2C\_Toronto\_Film\_Festival\_2012.jpg" alt="">

<ul>

<li><a href=”#introduce”>자기소개</a></li>

<li><a href=”#phon\_number”>연락처</a></li>

<li> a href=”#phon\_number”>헐</a>랭</li>

</ul>

<p>

Lorem ipsum, dolor sit amet<a href="http://www.naver.com"> consectetur</a> adipisicing elit. Nihil quia a voluptatem, minus, possimus accusantium saepe libero aut, nobis doloribus <b>illum?</b> Incidunt quae numquam ipsa cupiditate ab odio at et.

</p>

<button>전송하기</button>

다른 곳에 a태그를 두고 각 a태그 네임 속성에 값을 주고 li태그에서 href로 “#value” 형태로 작성을 하면 해당 value 속성을 가진 name태그로 이동하는 간단한 네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페이지를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짧게 설명했던 seo에 대해서 한번 더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EO는 검색엔진최적화의 약자로 구글검색엔진이나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에 최상단으로 노출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이 seo영역은 시맨틱작업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셔의 영역이기도 하고 깊게 들어갈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니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itle태그와 메타태그는 검색엔진이 페이지의 내용을 파악할 대 기본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며 title에는 해당 페이지 제목을 mata태그에서는 그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타이틀태그의 길이는 상관없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 title은 15자, 설명은 45자이내를 권장합니다.

Meta태그는 문서 자체의 특성을 담고 있는 태그로서 3가지 속성이 있는데 http-equiv=”항목명”,

Content =”정보 값”, name =”정보 이름” name을 사용하지 않으면 http-equiv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주로 사용하게 되는 메타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

<문자 코드의 종류를 설정 >  
<meta name="keywords" content="VELOPERT, LOG, 벨로퍼트, 개발, 일상">

<검색엔진에 사용되는 키워드를 정의한 메타데이터 >

<meta name="Description" content="Web, html, 웹 표준" />  
<각 페이지의 내용을 설명>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추가적으로 메타태그들은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 넓이 값을 지정하던지 , page auto reload기능이나 문서내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인코딩기법을 정하는 것들이 있지만 퍼블리셔들의 영역이기도 하고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라 나중에 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생각만 나시면 됩니다.

문서내 h태그들은 적절히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너무 많은 사용되는 건 좋지 않다.

앵커태그는 이동할 페이지의 내용을 함축하는 간결한 텍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Ex ) <a href=”http://www.naver.com”>www.naver.com</a>

그리고 복사한 내용의 출처를 적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복사한 페이지와 내 페이지를 중복문서로 생각해 순위를 떨어트리게됩니다. 이는 예전 싸이월드에서 무단으로 글들을 무단으로 펌할때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출처를 적지 않는 펌이 많아져서 출처를 적지않고 무단으로 수정한 것들이 검색 순위가 올라가고 출처가 불분명한 복사가 많아 원본의 페이지가 노출이 덜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페이지의 url이 같이 복사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css로 넘어가기전 html 태그들의 id 와 클래스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게임 id를 만들 때 중복체크를 하게 되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id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Html의 id값도 같습니다. 나는 <div id=”lee”></div>라고 선언하시면 이 div는 이제 부터 lee라는 이름을 유일하게 가지는 태그가 되어야합니다.

여기서 날카로우신 분들은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는 태그가 되어야한다는 말에서 살짝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사실 html에서 id값을 중복으로 주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나중에 우리가 짠 코드를 봤을 때 유일한 값인지 중복되어 사용된 값인지 헷갈리겠죠 ?

다음은 중복값이 허용되는 class속성인데요. Class속성은 주로 같은 스타일 속성을 받는 태그들에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 수 있겠죠 . id 와 class도 같이 사용 가능 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div id=”lee” class=”one two”></div>

<div id=”sara” class=”one”></div>

<div id=”rare” class=”one”></div>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읽어보면 나는 클래스 1반에 소속되어 있는 lee라고 해. 그리고 클래스에 각 클래스 벨류 사이에 공백을 주어 클래스를 여러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ss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